

증생은 인(因) 지을 때는 쉽게 지어 과(果) 받을  
때는 겁을 낸다. 보살은 인(因) 지을 때는 두려워  
해도 과(果) 받을 때는 수순한다. 작은 선(善)을  
지어 놓고 큰 복(福)을 바라다가 역경을 만나면  
선(善)을 지어도 재앙을 받게 되니 인과가 어디  
있으며 불법도 믿지 못하겠고도 비방하느니라.

## 자비행의 실천으로 “보살도” 총지중, 어르신 위한 「경로수련법회」



▲총지중 경로수련법회에서 어르신들이 야외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욕토기 오르내려 늙음을 재촉하고  
금까마귀 출몰하여 수명을 재촉하네 명  
예와 재물은 아침의 이슬같고 괴로움과  
영화로운 저녁 연기 같은 것들... 그대  
에게 권하노니 부지런히 도를 닦아 어  
서 빨리 부처되어 미한 중생 제도하라.  
금생에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지낸다면

후세에서 한탄함이 정녕코 끝없으리.”  
총지중은 자비행의 실천으로 보살도  
를 성취하고, 서원당에서의 불공을 탈피  
하여 자연속에서 자연의 숨소리를 들으  
며 수행함으로써 신심을 고취시키고, 어  
르신들을 위한 경로수련법회를 충북 보  
은군 산외면에 위치한 열림원 유스호텔

### 종조전 건립공사 막바지 8월 중순경 완공예정

“지난 4월 말 총지중의 법맥과 정통성  
을 계승하고 종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  
해 시작된 종조전 건립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오는 8월 중순경  
완공될 예정이다.

종조전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는 “종조전은 총지중의 위상을  
표현함과 동시에 총지중 스승 및 교도  
들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양식으로 출입문과 창문 및 내부 전체  
를 나무를 사용하여 무늬목을 사용하였  
고, 종조전 외에 각종 행사 및 다양한  
수행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을 최  
대한 마련하였으며, 8월 중순경에 내부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  
다.

그러나 8월 중순경 내부공사가 마무  
리 되더라도 유품 전시방법 및 공간 활  
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9월경에 완전한 모습으로 불자 및  
교도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법상원에서는 종조전에 전시할  
원정 종조님의 유품 및 서적과 행장을

수집, 정리하고 있지만 법상원에 소장된  
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종조님 생전에  
사용하셨던 유품을 소지하신 분은 법상  
원으로 연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종령 추대방법 의견수렴

##### 종정자문위원회, 원의회 개최

총지중 총리원장(범공)은 7월 31일  
종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5월 4  
일 원칙한 종령 록정대중사 후임자를  
추대하기 위해 종령추대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종정자문위원회는 종정자문위원회 회  
칙에 의거하여 종정 운영상 중요사안  
및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종  
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으며 법장화, 총지화, 경관, 원봉,  
수성, 해산, 효강님이 자문위원으로 위  
촉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8월 1일에는 원의회를 개최하여  
신임 종령 추대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텔에서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개최한다고 결정하였다.

경로법회는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하며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  
으며, 장기자랑 및 초청가수 공연, 야외  
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총지중은 8월 28일 오후4시 열  
림원유스호텔에서 입제식을 시작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29일 오전 10시에 회  
향한다고 하였다.

#### 중생제도를 구현하는 마음

##### 실무교육에 열중하는 실무들

지난 2월 15일 실무(승직의 계를 받  
기 전에 부르는 명칭)발령을 받은 박인  
관(안성), 최명현(우인), 박노주(보명  
심), 유성형(범우), 이옥진(인지심), 이  
중석(화령), 김홍배(법경), 황보상민(원  
경), 이희자(정견심), 장선옥(금강륜),  
이선희(정계월) 11명의 실무들은 삼보  
에 귀의하여 스승으로서 번뇌와 고통을

가진 중생을 제도를 구현하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깨달음을 통한 해탈을 이룩하  
기 위해 중앙교육원에서 실시한 7개월  
간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

이번 실무교육은 종전에 사원에서 거  
주하며 시행되었던 교육내용을 탈피하  
여 매달 1주일씩 통리원 교육원에서 실  
시한 교육일정에 따라 불교와 밀교에  
대한 기본교리와 수행체계, 총지중 종지  
와 의례를 습득하고 있으며, 8월에는 시  
무로서 마지막 교육으로 총지중에서 교  
도가 가장 많은 정각사(주교 경원)에서  
교화방법과 불공방법 등을 실수하며 스  
승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실무교육은 교육과정에서 교수  
방법과 과목에 대한 신중성과 체계성의  
부족이 지적되었지만 종단의 교육체계  
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성과와  
더불어 향후 도제양성에 대한 발전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하반기불공 회향 “방생법회” 모든 직업장 방생자비행으로 소멸

하반기불공 회향 방생법회가 7월 16  
일 전국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부  
산,경남교구는 경남 함양군 안외면 농월  
정에서, 대구,경북교구는 함천군 함천면  
인 문문정에서, 그 외 사원은 각 사원별  
로 자체적으로 방생법회를 가졌다.

특히 함양군 안외면 농월정에서 가진  
부산경남교구 방생법회는 개식사, 헌화  
및 훈향정공, 어류방생, 유가삼발, 불행  
사, 범어, 축사, 반야심경, 폐식사 순으  
로 진행되었다.

이날 방생법회에서 부산,경남교구장  
(해암)은 봉행사를 통해 “49일동안 국  
태민안과 선망부모조상들의 은혜에 보  
답하기 위해 온 정성을 들인 불공의 공  
덕이 오늘 이 방생법회로써 광명이 빛  
나고 불공한 공덕을 받아서 이생의 인  
연을 끊고 극락가는 영가님들을 환송  
하는 행사이며,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  
은 망자나, 이 법회로서 서로 간에 좋은  
인연을 만들고, 이 인연으로 소중한 삶  
을 살아가도록 하며 내세에도 인연의  
공덕으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저희  
들이 인연따라 일심으로 독송하는 진언  
으로 맺은 원결 모두 풀고 자옥세계 무  
너지며 삼계고해 벗어나서 아미타불의  
극락왕생을 축원한다”고 하였다.

삼필사 주교이며 중앙총회의 의장인  
의강 종사는 법어에서 “저 멀리서 들려  
오는 비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방생법  
회를 봉행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며 이  
러한 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은 교주이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의  
본심미묘인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  
흠의 공덕으로 이루어 졌으며, 49일동안



▲방생자비행으로 모든 직업장 소멸을 서원하는 보살들.

불공한 진호국가 불사는 신라시대부터  
부국강병을 위하여 이어져 온 것으로  
위로는 국태민안과 선망부모의 극락왕  
생과 아래로는 자녀들의 건강과 조국의  
통일을 기원하였으며, 서원당에서 감고  
다독은 불공으로 원망심과 수원심을 버리  
고 환희한 마음으로 삶의 전환기를 삼  
고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으로 법안  
에서 소원성취를 기원한다”고 하였다.

부산, 경남 지회장(신인복)은 축사  
에서 “일찌기 부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부러  
죽어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  
므로 중생을 애민하게 생각하는 마음속  
에 보살의 지혜가 자재하게 되고 모든  
행위를 할 때 그 업장이 생기는 것이니,  
좋은 일을 기쁘게 행하면 반드시 좋은  
업이 생기고 한 마리의 물고기를 놓아  
주었을 때 꼬리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환희심을 일으킬 수 있

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방생함  
과 같은 이치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  
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악업을 짓고 있  
습니다. 그 수많은 죄업장을 방생자비행  
이라는 환희로움으로 녹일 수 있는 지  
혜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방생법회가 끝난 후 각 사원별  
로 장기자랑 및 불모찾기, 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생법회의 여  
흥을 풀었으며 교도들간의 화합을 도모  
하였다.

#### 축비소리

어떤 것에서 관마로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밝은 마음의 눈을 가지  
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점만 찾으려는 사람도 있  
고 나쁜 점만 찾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  
은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수많은 나쁜 점들 가운데서 우연히 발견  
한 단 하나의 좋은 점에 정성을 다하는 사  
람들이야말로 진실로 마음의 눈이 밝은 사  
람들입니다.

-가반 도우즈의 <문둥이성자 다미안> 중에서-

#### 제5회 불교총지중

## 경로수련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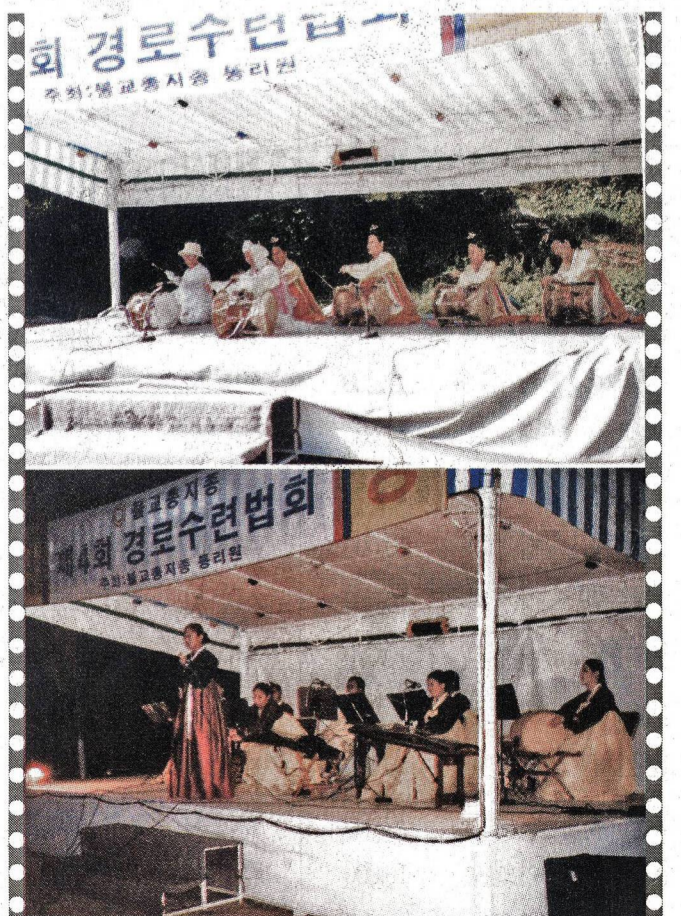
“자비행의 실천으로 보살도를 이룩하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5회 총지  
중 경로수련법회에 어르신들을 초대합니다. 자연속에서 자연의 숨소리를  
들으며 수행함으로써 신심을 고취시키고, 전국의 어르신들 한자리에 모이  
으로써 서로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장기자랑, 야외법회, 레크레이션 등 다  
양한 프로그램으로 보살도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바람  
니다.

- ◆ 제 목 : 제5회 경로수련법회
- ◆ 참가대상 : 65세이상 어르신
- ◆ 일 시 : 총기32년 8월 28일~8월 29일
- ◆ 장 소 : 열림원 유스호텔(충북 보은군 산외면) ☎ 043-542-9992
-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불교총지중**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02)552-1080~2  
전송 :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 사설

## 종령 추대에 즈음하여 ...

지난 5월 4일 특정 종령님의 열반 이후 종단의 최고 어른의 자리인 종령직은 현재 공석 중에 있다. 7월15일의 하반기 49일 불공회 향일을 기점으로 종령추대문제가 종단의 중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반기49일 불공은 진호국가불공이기도 하지만 조상천도 대정불공과 함께 종령추대 일만을 서원하는 불공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오랫동안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종단의 구심점이 없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종령추대는 빠를수록 좋다. 현재 종단의 심의기구에서 종령추대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행보라 여겨진다. 여기서 종도들은 종령추대에 있어서 여법하고 무리가 없는 추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첫째 종령은 전법(傳法)과 사법(嗣法)을 관장하는 종단 최고 행위자(行位者)로서 본종을 대표하며 종단을 통할하는 중요한 자리임은 누구누가 다 아는 바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위치에 있는 종령을 추대하는 데 있어서 승단은 종단적으로나 수행적인 측면에서 무난한 분을 종령으로 추대하는 해안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린다. 종령은 가장 수승하고 청정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 자리이다. 철저히 계행(戒行)을 지키고 염승정진과 실천수행력이 뛰어난 분이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행정부의 수장(首長)이나 공권직 중무원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종령을 추대하는 데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사사로운 마음없이 적의한 어른을 종령으로 추대하여야 한다. 종령추대에 있어 사적인 인간관계가 작용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결과와 함께 과정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원칙과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좋다고 해서 아예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추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먼저 자격요건은 절대 종범에 정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 특정인을 위한 법의 개정은 삼가되어야 하고, 부득불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승단 전체의 결을 묻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기전에는 반드시 현행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주장하는 바이지만 법적 자격요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승단의 승승님들의 생각과 판단, 결정에 따라 앞으로의 종단발전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사회는 급변해가고 있다. 종단 내에서도 젊은 승직자가 유입되고 변화와 발전의 욕구가 표출되고 있다. 이제 변화의 물결은 피할 수 없는 대세(大勢)이다. 변화와 발전의 기로에 서 있는 총지종의 미래는 이번 종령추대에 달려 있다. 승단 승승님들의 심사숙고와 해안(懸眼)이 있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이다.

## 종교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주 5일 근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통사찰에서는 내방객이나 신도들을 배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주말을 이용한 사찰체험이나 문화답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신도기층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 지난 월드컵 기간 동안 불교계에서 실시했던 '법플스테이'는 좋은 표본이 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불교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일반인들에게는 새벽예불과 함께 발우공양, 율령 등 사찰 생활을 직접 경험해보는 유익한 시간들이 제공 되고 있다. 도시인들에게 산사의 여름수련회는 인기만점의 여름휴가이기도 하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나 종교체험의 콘텐츠 개발은 우리 종단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개인의 욕구나 취향은 더욱 다양해졌고 종교를 찾는 이유도 다양해졌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종교적 욕구와 문화적 충격을 마련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한다. 구태의 모습으로는 교화에 큰 발전을 가져 올 수 없다. 실질적 교화방편을 도입해나갈 필요가 있다. 부분적으로 일부 사원을 특화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교화방편을 시도해야 한다. 이번 종령추대를 기점으로 제2의 창흥을 위한 변화가 전개되기를 기대해본다.

#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깊이

## 신나는 총지종 여름학생수련회

"고뇌하는 청소년들이여 지금의 나로 태어났음에 감사하라. 그대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우연히 아니다. 모두가 전생에 좋은 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에 만족하고 사람으로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지금의 나를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

제13회 총지종 여름학생 수련회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북 안동일대에서 도예체험, 한지제작, 하회탈춤, 추억만들기, 하회마을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날 입재식에서 총지종 통리원장(법공)은 "오랜만에 부모님 곁을 떠나 수련회에 참석한 어린이 및 청소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유교와 불교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전통과 서민들의 애환과 고귀를 참으로 표현한 탈춤을 통해 옛 서민들의 애환을 직접 체험해보고, 스스로 도자기를 제작해 봄으로써 선조들의 예술 혼을 이어받아 호연지기를 배양하고, 각종 행사를 통해



총지종 여름학생수련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깊이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기를 서원하며, 또한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좋은 업을 지었기 때문이므로 앞으로도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간에 좋은 인연을 만들며 살아갈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이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각종 수련회에 참석하였지만 이번 수련회는 아주 훌륭한 수련회였으며, 학교에서 책과 선생님의 말로만 듣던 탈춤과 한지, 도자기 등 각종 행

사를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현장학습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총지종은 이번 여름 학생 수련회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로 다음 수련회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향상된 학생수련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학생수련회를 통해 맺어진 인연들을 지속하기 위해 각 사원에 자성학교 및 청년회를 조직하여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 온라인을 통한 포교 활성화마련

### 총지종 홈페이지 개편 마무리 단계



새롭게 선보일 총지종 홈페이지 메인화면.

총지종은 지난날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웹디자인 전문가에게 홈페이지제작에 대한 계획안을 의뢰하여 7월 중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대한 시안을 확정 하였다. 총지종 홈페이지는 지난해 봉안 전문가에게 홈페이지제작에 대한 계획안을 의뢰하여 7월 중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대한 시안을 확정 하였다.

조화를 배치하였으며, 총지중보, 종단자료실, 신행상담, 게시판을 마련하였다.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온라인상을 통해 종단의 대소사 및 행사 등을 공지하고 신행상담을 통해 밀교에 대한 교리 및 종단에 대한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총지종이 위탁하고 있는 역사재가 노인센터와 동해중학교 및 풍경소리와 연결한 콘텐츠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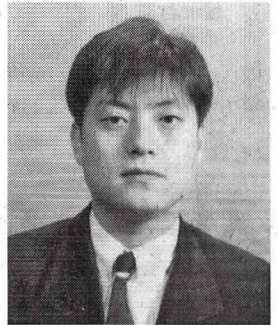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있는 관계자는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포교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홈페이지는 이러한 포교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매일 매일 각종 정보를 게시하고 적절한 자료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총지종은 전국 승승님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각 사원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무행정을 전산화하고 각종 신행상담 및 신도관리 등을 통해 포교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 복지재단

종교는 그 특성상 포용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정치의 논리를 순화하면서 계층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완화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데 적격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종교 특유의 사회 비판 기능을 통해서 사회 개혁과 진보를 위한 유력한 전

근접해 있다.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는 수행과 사회복지자를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수행의 실천이 바로 사회복지인 것이다. 불교 사회복지를 전개 하는데 있어 보살도, 불살생, 보시 같은 불교의 사상을 사회복지의 이념



박현수 교무

과 잘 조화시키면 사회복지이념과 조화된 불교 사상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물질이 인간보다 우선시 되는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인간중심의 종교인 불교는 인간을 인간 본연의 자리로 되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부분

의 사회복지자는 물질적 원조에 집중한 것이다. 당장 끼니를 굶게

## 불교와 사회복지에 대하여

는 없다. 따라서 종교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회적 소임을 다하면서, 나아가 정의의 파수꾼으로서 사회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현실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불교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여타 다른 종교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이고 비현실 참여종교라는 비난을 들어 왔다. 그것은 어쩌면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불교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치로 들어나는 여러 가지 통계상으로도 불교가 다른 종교들에 비해 사회복지 참여도가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원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복지 원조가 물질적 원조에만 머물고 만다면 사람들은 곧 그러한 원조를 당연하게 여기고 원조를 받는 것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게 된다. 그 때문에 세계의 복지 선진국들이 계속 증가하는 복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민하게 된 것이다. 진정한 사회복지자는 물질적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안정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회향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사회복지가 고도로 발전하면 할수록 부처님의 대자대비심과 보살의 자비심이 필요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불교의 사상은 정신적 사회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자리아타를 실천하는 보살도사상이나 불살생이 의미하는 생명존중사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부는 보시 같은 불교적 사상은 그 자체로 훌륭한 사회복지 이념이 되고 있고 이는 사회복지사업의

### 알림방

- 총지종 제5회 경로수련회가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충북 보은군 신원면에 위치한 열림원 유스호텔에서 개최함.
- 관성사 주교인 해정님 모친께서 7월 26일 열반하여 28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인식을 하였습니다.
- 제1회 전통등 및 사물놀이 감수회를 9월부터 3개월간 총지종 통리원에서 실시함. 8월말까지 접수마감예정.

#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2003년 6월 20일부터 2003년 7월 18일까지

개천사 박병선 5,000	밀인사 정정희 5,000	수인사 한애숙 20,000	정각사 김애자 5,000	통리원 인 선 10,000
개천사 이희권 10,000	밀인사 제에덕 3,000	시범사 지 성 30,000	정각사 김정남 10,000	해정사 고춘배 5,000
개천사 최지형 30,000	백월사 박삼순 5,000	실보사 방원순 10,000	정각사 김정연 20,000	해정사 김완식 5,000
관성사 박현숙 10,000	백월사 이민자 10,000	실보사 송희준 10,000	정각사 남숙자 20,000	해정사 박종석 10,000
관성사 윤 준 5,000	법천사 김정숙 5,000	실보사 이순옥 5,000	정각사 무명씨 10,000	해정사 수중원 10,000
관성사 이순삼 20,000	벽룡사 권분생 20,000	실보사 보생각 10,000	정각사 박훈취 10,000	해정사 해보심 10,000
관성사 이혜원 5,000	벽룡사 무명씨 3,000	실지사 상대성 6,000	정각사 이란이 5,000	흥국사 강문석 10,000
관성사 황성녀 10,000	벽룡사 박은숙 10,000	실지사 송우섭 5,000	정각사 이수임 5,000	흥국사 강한빛 10,000
기로원 대 관 10,000	벽룡사 보심만 5,000	실지사 이숙례 3,000	정각사 이옥희 35,000	강지원 3,000
기로원 대자행 10,000	벽룡사 지신주 10,000	실지사 이옥분 10,000	정각사 정금순 6,000	공철봉 6,000
기로원 법장화 10,000	벽룡사 추정환 5,000	실지사 장근도 10,000	정각사 조춘금 10,000	김상열 10,000
기로원 상지화 10,000	성화사 법 공 50,000	실지사 정경자 5,000	정각사 조현필 5,000	무명씨 10,000
만보사 배정임 10,000	수인사 권오남 40,000	실지사 정우석 5,000	정각사 황영숙 10,000	무명씨 10,000
만보사 이설강 5,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실지사 주영채 5,000	정심사 박옥란 10,000	박홍렬 5,000
밀인사 김덕배 10,000	수인사 김 진 10,000	실지사 지심행 10,000	지인사 김기백 10,000	배운택 20,000
밀인사 안옥진 10,000	수인사 원 봉 20,000	운천사 김부자 10,000	지인사 임순옥 5,000	허 관 5,000
밀인사 이연수 10,000	수인사 이효순 20,000	운천사 배도련 10,000	총지사 김효숙 20,000	
밀인사 이재호 10,000	수인사 최공자 10,000	운천사 이형란 30,000	총지사 이인성 20,000	

###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산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이달의 설법문안

# 불교인의 바른 신앙

부처님 말씀 중 『화엄경』에 세상 만물을 다 스승 삼아서 배우라고 하셨는데, 이는 사람 뿐 아니라 형상이 있는 것에는 다 배울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과거의 허공이나 현재의 허공이나 미래의 허공이나 허공은 변함이 없고 감도, 온도 없고 생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문을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자리도 또한 저 허공바탕과 같다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밝음을, 산에는 동요함이 없는 부동자세를, 초목·초림에는 굳은 절개를, 물에는 유연함·정정함 등 백 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본래의 무생한 도리를 우리가 비로소 알고, 이 자리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정진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지만 그 가운데서 인생담게 보람되게 살다 가신 분은 몇 분밖에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째 자기 마음자리를 잘 다스려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자리를 스스로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잘 믿고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나가는 나 하는 것이 제일 첫째 문제입니다. 항상 겉으로는 부처님을 믿는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살펴보면 몇 사람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마음 가운데 잘못됨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훑보기 전에 내 잘못을 먼저 뉘우치고, 말을 입 밖에 내기 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살생한 죄 참회해라, 도둑질한 죄 참회해라, 사

일 수행장진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잘 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 중생교화 하려는 결심입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한가지를 알면 한가지를 가르쳐 주고, 두 가지를 알면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내가 모르거든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칭할지언정 남에게 모르는 것을 거짓으로 안다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르면서 남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한

입니다. 속세에서 유명했던 부자였던 간에 불교에서는 계받은 순서로 선참, 후참을 정하고 동일한 도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아니라 평등인 것입니다.

넷째 불교는 타력신앙이 아니라 자력신앙이며, 자력 해탈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힘을 빌려 해탈하려고 하거나 부자가 되려고 하고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자 한다

이 세계는 밝은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항상 우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되는 일이 없이 활동을 해야 합니다. 활동을 하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 지언정 피해는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해서 나가려는 생각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헌신 보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만 많이 벌어서 잘 살려고 하면 부자가 못 됩니다. 헌신 보시하는 것이야말로 복덕 종자를 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계속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생각이 없으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생각 어려웠을 때는 우리가 중생이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당연한 생각, 한 생각을 깨달으면 그것이 성불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지 말고 행하십시오. 틀림없이 성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행복은 그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 바른 수행은 바른 자세에서 시작된다

지난 호에서는 우리 종단의 공식불공 의례 가운데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는 '실천서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호에서는 불사법요(佛事法要)의 두 번째 내용인 '금강정좌(金剛正坐)'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한다.

염송이나 참선을 할 때 앉는 자세를 일러 '좌법(坐法)'이라 한다. 대개 '가부좌'라든가 '반가부좌'라고 하는데, 밀교에서는 앉는 자세를 일러 '금강정좌(金剛正坐 또는 金剛正坐)'라 한다.

가부좌(伽趺坐)는 오른쪽 발을 왼쪽 허벅지 위에 얹고 다음에 왼쪽발을 오른쪽 위에 얹어 앉는 법을 말한다. 석존께서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變容)인 셈이다.

밀교에서 금강은 바로 부처님의 지(智)와 덕(德)이 경고하여 생사(生死)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으며 단단하고 예리하여 능히 모든 번뇌를 깨뜨려 없앴을 의미한다. 그래서 금강이란 말은 밀교의 교리나 의례작법에 많이 쓰이고 모든 불보살의 명호(名號)나 의례수법(修法) 등에 이름 붙여지고 있다. '금강합장' '금강권' '금강살타' 이니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금강정좌'도 마찬가지이다.

'금강정좌'를 '현밀원통성불심요집(顯密圓通成佛心要集)'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매일 법에 따라 지송할 때는 먼저 금강정좌를 한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다리 장판지 위에 올려 놓거나 혹은 편하게 앉아 하여도 된다.'

이 '금강정좌'는 진언염송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 금강은 부처님의 지와 덕 바른 염송이 바른 깨달음

성도할 때 앉았던 자세이므로 이를 '여래좌(如來坐)' '불좌(佛坐)'라 한다. 반가부좌(半伽趺坐)는 좌우중 한쪽 발을 좌우의 다른 한쪽의 허벅지 위에 놓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밀교에서는 '금강정좌'라 한다.

원래 '금강'은 인도 고대에서 사용되었던 무기를 가리켰다. 이것이 불교속으로 수용되면서 신심(信心)과 행법(行法)이 굳어져 강하여 부서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여지게 되었다. 특히 밀교에서는 적을 물리치는 무기가 아니라 수행에 있어서 사마(邪魔)를 항복시키고 조복(調伏)시키는 무기로 확대 적용되었다. 용도와 의미의 변용

이때 중심되는 의례이다. 이 금강정좌가 우리 총지종의 모든 불공과 수행에서 제일 먼저 행하는 의례로서 '삼밀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첫단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금강정좌'를 통해 바른 '삼밀수행'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이요, '금강' 같은 바른 자세에서 바른 염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른 염송이 되었을 때 바른 깨달음이 일어난다. 우리 종단의 모든 불공과 진언염송은 바로 이 금강정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바른 자세에서 금강같은 선정을 이룰 일이다.

(법령/법정원 연구원)

## 자기의 마음자리가 우주의 진리, 해탈의 방법 당연한 생각, 한 생각을 깨달으면 그것이 성불

음한 죄 참회하라, 거짓말한 죄 참회하라, 우치한 죄 참회하라'고 하셨듯이 스스로 뉘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학교도, 교육자도, 지도자도 필요없을 것입니다. 완성되지 못하므로 교육자도 배우는 자도, 지도자도, 스승도, 제자도, 종교인도 다 있는 것이지 미리 다 완성되어 있을 것 같은 면 그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완성되지 못한 정한 이치입니다.

둘째는 불교는 독선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서원당에서 하루 종

일 배푸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틀림없이 부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오래 살고자 하면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 주어야 한다. 만 사람의 뒷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만 사람의 앞사람이 되고자 하십시오.

불교는 '항상 화합하여라'라고 합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도 교화해서 착한 사람 만들어 세상에 내보내고, 악한 사람 그대로 내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불문 문중에 들어오면 동일계급

만 배푸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틀림없이 부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오래 살고자 하면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 주어야 한다. 만 사람의 뒷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만 사람의 앞사람이 되고자 하십시오.

불교는 '항상 화합하여라'라고 합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도 교화해서 착한 사람 만들어 세상에 내보내고, 악한 사람 그대로 내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불문 문중에 들어오면 동일계급

## 지상설법

#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불자가 되자



백일사 사홍화지수

내가 산다는 식입니다. 물론 사회적 동물로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생존경쟁이란 무서운 싸움판이나 마찬가지 이기에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믿고 남을 쓰러뜨리고도 의기양양해 집니다. 이토록 우리들은 천박해 가고 있고, 못 사람냄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지금 시대에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조직과 사회행위를 개탄하기 보다는 오늘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알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창조적 계기로 삼아 이 땅에 불국의 씨앗을 심어가는 불사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될 것을 간곡히 부탁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불사라는 것은 바로 가정을 잘 지키고 가족간에 화합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에 와서 불공하고 불사하는 것만큼 가정의 화목을 위해 서로가 이해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다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불사입니다. 가정은 불국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도량이므로 가정을 위해 마음을 다하는 것이 곧 불사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실천의 종교 할 수 있습니다. 중생들이 공통받고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알고 이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종교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삶에 밀접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청정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정진하는 수행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학교는 몇 년 다니면 졸업하지만 수행은 따돌이 졸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수행을 해야 하고 모든 일에 수행하는 마음으로 임해

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바라밀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푼다는 마음이 없이 배푸는 보시, 계율을 잘 지키는 지계, 어려움과 미혹을 참고 이겨내는 인욕, 부지런히 노력하여 게으름을 없애며 진실의 도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정진,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선정, 어려움에 버텨낼 수 있는 참다운 진리의 눈인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보시바라밀은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것이기에 수행의 첫 번째 덕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내 것'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갓난아이에게 물건을

줘야 하면 교육 옮겨주는 것처럼 우리 손에 있는 것이라면 놓아 버리기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 주었다는 자취도 없이 주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진정한 불자입니다. 부처님의 교리를 좇을 외운다고 해서 불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

만 있을 수 없습니다. 무주상보시를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운 불자일 것입니다.

마하살타이신시호품에 나오는 설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가사를 입고 발우를 지닌 채 아난과 함께 성에 들어가 걸식을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부처님을 애석하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노모가 "원컨대 부처님이시여 제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소서!" 그 노모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이 남의 재물을 훔치다가 그만 주인에게 들켜 사형에 처하라는 왕의 판결을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부처님을 보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아난을 왕에게 보내 살려주기를 청하니 왕은 부처님의 청을 듣고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아리천에 이르렀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아난은 그 형제들이 중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에 의해 석방되고 아리천이 된 것을 감동하게 생각하고 부처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들은 오늘날 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전생에 인연과 은혜를 입은 적이 있느니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한달에 천 번씩 제사를 드려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는다 해도 잠깐 동안이나마 한 마음으로 바른 법을 생각하는 것만 못하느니라 생각 사이 짓는 그 복은 죽을 때까지 제사 지

내는 것 보다 나으니"

비록 백 년 동안 신을 받들어 섬기더라도 잠깐 동안이나마 부처님과 법과 스승을 공양하는 것만 못하느니라 한 번 공양으로 짓는 그 복은 백 년 동안 신을 받드는 것보다 나으니."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굶주리고 있으면 그들에게 음식을 공양하고 목숨을 잇게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있으면 그들을 보살피고 공양하며 편안하게 하고, 가난하고 고독한 자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공양하고 보호하며, 청정하게 수행하는 이가 있으면 그를 위해 옷과 법을 공양하고 외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탄생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 삶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불자들도 부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남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양식이 되어주고 병든 사람에게는 간병인이 되어주고 나태한 사람에게는 경책을 하는 불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보시, 그것이 참다운 보시일 것입니다.

### 제1회 전통등 강습 및 사물놀이 강습

# 당신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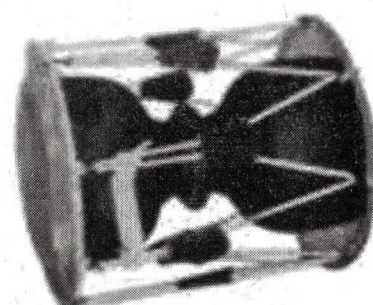
일 시 : 9월부터 3개월간  
장 소 : 불교총지종 통리원  
참가비 : 무료

### <강습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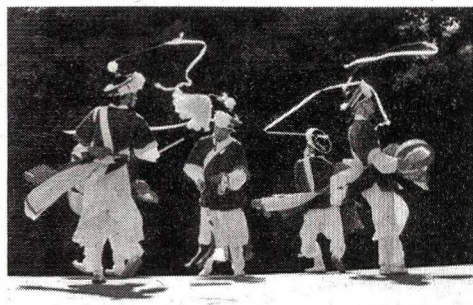
1. 전통등 강습  
대 상 : 00명 (20세~30세 남녀)  
교육일자 : 주중 야간 또는 주말  
교육장소 : 통리원 2층 반야실
2. 사물놀이 강습  
대 상 : 00명 (20세~30세 남녀)  
교육일자 : 주중 야간 또는 주말  
교육장소 : 통리원 무용실

3. 접수 및 문의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 2동 776-2 불교총지종 통리원  
전 화 : (02) 552-1080~3  
전 송 : (02) 552-1082  
이메일 : pantha@hanmail.net - 8월말까지 마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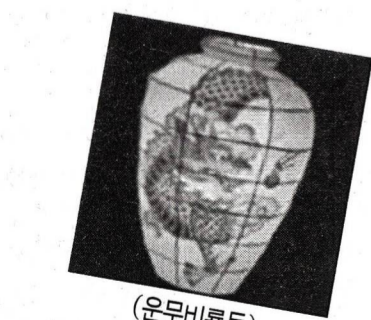
수강신청서는 총지종 홈페이지 http://www.chongji.or.kr/게시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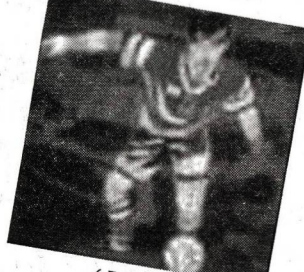
(사물놀이 공연 1)



(사물놀이 공연 2)



(운무비룡등)



(축구등)

## 불교총지종

### 제1회 전통등 강습 및 사물놀이 강습 신청서

접수번호 :

성 명 :  
불 명 :  
소속사원 :  
성 별 :  
직 업 :  
가족관계 :  
현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e-mail :

본인은 (전통등 강습, 사물놀이 강습) 수강을 신청합니다.

\* 위 강습내용 중 본인이 희망하는 하나에 0표 하세요.\*  
총기 32년 월 일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귀하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⑥

태장계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의 남방(南方) 개부화왕여래(開敷華王如來)

지난 호에서는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의 오불(五佛) 가운데 동방의 보광여래(寶幢如來)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남방에 자리잡고 있는 개부화왕여래(開敷華王如來)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주 >

태장계만다라의 남쪽, 그러니까 행자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하여 중앙 대일여래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여래가 개부화왕여래(開敷華王如來)이다. 이 여래를 다른 말로 사리수왕개부(沙羅樹王開敷), 줄여서 화개부(華開敷)·개화부여래(開華敷如來)라고 한다.

이 개부화왕여래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 즉 수행(修行)을 상징하는 여래이다. 그래서 이 남방의 개부화왕여래를 꽃봉오리가 피어오르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 깨달음을 향하여 수행을 거듭 쌓아가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 바로 개부화왕여래는 수행과 정진을 나타내는 여래이다.

『잡아함경』과 『구사론』 등에서는 수행을 '실천하는 것'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다른 경전에서는 '난행(難行)'이나 '요



게 발하므로 어두움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두려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개부화왕여래를 상징하는 진언 종자(種子字)는 아(阿)자이고 삼매야형(三昧耶形)은 오고금강저(五結金剛杵)이다. 아(阿)자는 대일여래의 '수행'의 덕성(德性)을 상징한다. 오고금강저는 끝대 무너지지 않는 수행을 상징하고 있는 삼매야형이다. 금강저는 고대 인도의 무기를 말하는 것으로 밀교에 와서는 번뇌를 부수는 보리심(菩提心)과 금강불퇴전(金剛不退轉)의 수행을 상징하게 되었다. 밀교승이 수행(修行)과 의례(儀軌)를 행할 때 쓰는 도구로 양쪽 끝을 뾰족하게 만든 것이다. 모양에 따라 뾰족한 끝이 하나인 것을 독고(獨結), 세 개인 것을 삼고(三結), 다섯 개로 된 것을 오고(五結)라 한다. 독고저(獨結杵)는 우주법계를 의미하고, 삼고저(三結杵)는 삼밀(三密)과 삼신(三身)을, 오고저(五結杵)는 오지(五智)와 오불(五佛) 등을 나타낸다. 이 금강저(金剛杵)가 보리심을 뜻하므로 이를 갖지 않으면 밀교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수행을 할 때 반드시 금강저를 지니고 의례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존형(尊形)은 황색(黃色)으로서 왼손은 가사의 한 쪽 끝을 잡고 배꼽 앞에 놓으며 오른손은 시무

깨달음을 향한 수행을 상징 - 평등성지(平等性智)의 세계 보리심의 종자가 성장발육하여 만개(滿開)한 연꽃의 자태

가에 힘쓰는 것 '지계(持戒)'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러한 수행에 더욱 힘쓰는 것이 정진이다.

그래서 이 개부화왕여래는 수행을 통하여 망식(忘識)을 전식득지(轉識得智)하여 평등성지(平等性智)를 얻게 하는 여래이다. 이 평등성지(平等性智)는 현실세계에서 자기와 타인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차별이 없고 평등한 것임을 아는 지혜이다. 그래서 이 여래의 밀호(密號)를 평등금강(平等金剛)이라 부른다.

이 개부화왕여래의 상징은 보리심의 종자가 성장발육하여 만개(滿開)한 연꽃의 자태를 나타낸다. 『대일경』에서는 '깨달음의 꽃이 피어 금색광명(金色光明)을 방광(放光)하여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떨어져 대공(大空)과 같다.' 라고 설하고 있다. 깨달음의 꽃은 보배 연꽃인 '보련화'이다. 그래서 개부화왕여래의 인상(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이요, 앉아 있는 좌대는 보련화(寶蓮華)가 된다. 금색광명은 존형(尊形)이 황금색(黃金色)임을 의미한다. 황색 빛이 사방으로 환하

외인(施無畏印)을 하고 가슴 앞에 놓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시무외인(施無畏印)은 사마(邪魔)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래의 위력을 발휘하는 결인으로 두려움이 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여래인이다. 이 시무외인은 오른손을 올려 다섯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는 결인이다. 모든 악마가 근접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이요, 사람들의 공포나 불안을 제거시키고자 하는 부처님의 힘을 상징한다. 이를 밀교에서는 금강불괴인(金剛不壞印)이라 한다.

가사 형태는 양 어깨 모두 걸쳐지는 통견(通肩)의 모습을 하고 있다. 대체로 통견은 불제자(佛弟子)가 수행할 때 취하는 정식 복장에 해당한다. '바른 수행'을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표현이라 풀이할 수 있다. 개부화왕여래를 나타내는 진언은 '나막 사만타 붓다남 밤 바하 사바하'이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밤 바하 사바하'의 뜻이다. <자료정리 : 법장원 >

한보살의 아름다운 세상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불교도가 할 일은 무엇일까

퇴근길에 버스에 올랐다. 버스에서는 라디오가 켜져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한 애청자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었다. 사연인 즉, 2년동안 사귀던 동아리 선배랑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진 지 6개월이 되었어도 아직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사연이었다. 라디오를 듣다가, 문득 어제 만난 탈북자분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50년이 넘도록 남과 북으로 헤어져서 애틋한 이산가족들이 생각났다. 2년동안 사귀다 헤어진 애인 때문에도 그렇게 괴로운데, 부모 자식, 형제자매가 생이별을 한 지 50여년이 되었다.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생각해 보니 가슴이 메어지는 듯했다.

어제 만난 탈북자 분은 말했다. 노인회관에 가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통일은 해서 뭐하느냐, 나는 나 먹을 만큼 돈 벌여놔고, 내 자식 뉘까지도 모아 놔. 그런데 통일이 되면 그것을 나눠 가져야 할 테니, 내 자식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고 한다고 하신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많이 상하는 모양이다.

그 분께 남한에 와서 무엇을 가장 많이 느꼈느냐고 여쭙봤더니, 동질감이라고 했다. 우선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제사지내는 것, 명절 등 전통문화들 속에서 이질감보다는 동질감을 더 많이 느꼈다고 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오랜 세월 갈라져 살았다고 해도 역시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오랜 세월동안 함께 살아온 한민족이기에 그렇구나하고 이해가 되었다.

지난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참여불교세계대회(INEB)가 한국에서 있었다. '평화와 화해'라는 주제로 15개국 세계 참여불교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일정 중 23일 오전에는 임진각에서 평화명상을 진행하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띄워달라 아래에 앉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간절한 기원을 담아 그 마음을 세상으로 보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가득해 지길 기원했고, 우리의 이러한 평화의 염원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기원했다. 그래서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전쟁의 위협과 그로인한 긴장감을 부드럽게 녹여 줄 수 있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우리는 27년후에 통일된 땅 한반도에서 태어난 손자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통일될 당시에 기분이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하는 상상을 하며 통일의 기쁨이 얼마나 가슴 벅찬 것일지 잠깐이나마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당시에 통일을 위해 무엇을 했었는지를 묻는 손자의 질문에 무엇이든 답할지 생각해 보며, 나는 지금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전협정 50주년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클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진정한 평화를 가

져오기 위한 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한 외국인인은 말한다. "한국불교 부흥의 길은 분단을 통일로 이끄는 일이 될 것이며,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끄는 일을 통해서 한국불교는 부흥할 것이다."

내 안의 평화를 만들고 내 자신의 인격적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일 못지않게, 우리 주변의 아픔을 살피고 보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참으로 평화의 씨앗을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구나 생각했다. 평화란 통일을 위한 방법론일 뿐만 아니라 통일이 지향해야 할 목적이기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주영/불교연구개발원 연구과장 >

이달의 명상

"사람에게는 옛날과 지금이 있으나 법에는 밀고 가까움이 없으며, 사람에게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있으나 도에는 성하고 쇠함이 없다. 비록 부처님 당시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아무리 말세를 만났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한다면 무엇이 해로우랴."

진정 그러합니다. '불후말세(佛後末世)', '불전불후(佛前佛後)'를 핑계삼고 시대를 탓하는 것은 정법(正法)이 아닙니다.

사람중에도 어리석은 이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성함과 쇠함이 따로 없습니다. 고귀과 성쇠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은 오래가지 않고 바른 법은 듣기 어렵습니다. 어찌 시대와 흥망성쇠를 핑계삼아 도 닦기를 주저할 것 입니까? 부처님의 법과 인연이 주어진 이때 힘써 닦으면, 닦기 어려운 행이라도 닦아 익힌 힘이 있기 때문에 차츰 어렵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을 비롯하여 옛날 도를 이룬 분들 중, 처음에 범부 아니었던 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면 좋은 날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니, 수행하는 그날 그날이 모두 좋은 날입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정진하십시오. 시대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과 밝음을 살피서 적합한 수행법을 택하여 마음자리를 밝혀갈 뿐, 비겁하거나 나약해져서는 안됩니다.

<편집자주 >

장기기증!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장기기증 신청 방법

- 1) 02)734-8050으로 전화상담 ⇨ 신청서류접수 ⇨ 등록
2) www.lisa.or.kr 접속 ⇨ 인터넷등록
3) 종로구 견지동 74-8사무실직접방문 ⇨ 상담 및 등록

뇌사시 장기기증

뇌사

상태에 처한 사람의 장기(심장, 신장, 간장, 폐장, 각막 등)를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사상태는 자발호흡이 불가능하고 소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흔히 혼동하는 식물인간과는 다릅니다. 뇌사자 본인이 생전 장기기증을 서야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동의할 시에 병원과의 협조하에 이루어집니다.

사후 각막기증

각막

기증이란 주로 시신경 기능은 살아있으나 각막이 손상되어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자에게 시술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한 지 6시간이 안된 시신의 각막을 적출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이식하면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각막기증은 선행, 근시, 난시와도 상관 없으며 80세까지도 기증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후 6시간내에 빠른 연락을 해야만 각막이식이 이루어 지루 수 있습니다.

사후 시신기증

현재

각 의과대학에서는 해부용 시신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 시신기증이란 의학발전을 위해 죽은 후 자신의 몸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것입니다. 의학발전은 병마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 줍니다. 즉, 사후 시신기증은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커다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생전 골수기증

골수

기증은 백혈병이나 골수이식이 필요한 각종 암환자에게 새생명을 주는 고귀한 나눔의 골수기증은 만 35세 이하인 분으로 건강한 분이여야 하며, 헌혈을 한 번 정도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골수기증은 골반뼈에서 골수액을 채취하며, 약 2일 정도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생전 신장기증

우리

주변에는 만성신부전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신장 2개 중 하나를 환자에게 기증하는 것입니다. 신장기증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체조직이 일치해야 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조직점사를 하게 됩니다. 생전에 하는 기증이기 때문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동의도 필수적입니다.

환자지원 및 후원집수

생명

나눔실천회는 접수후 후원금을 백혈병이나 신부전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소판 헌혈과 헌혈증도 함께 지원합니다. 아울러 생명나눔실천회가 주최가 되는 각종 캠페인과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원과 자원봉사는 삶과 생명 나누기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충지논단

실천공부 ②

본 글은 종조 원정 성사께서 서 적간행을 위해 친히 쓰셨던 원고 의 일부입니다. 원정 성사께서 창 종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국절절 일체중생제 도의 대비원(大悲願)을 느끼게 됩 니다.

또한, 한국민교의 중흥을 창종 정신으로 삼았던 종조 원정 대성 사께서는 정통밀교종단의 교상과 사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 니다.

특히, 한때 진각종단의 총인직을 맡으셨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와 교전편찬을 손수 완성하기도 하셨 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 사의 유교(遺稿)에서 엿보게 됩니 다. '심인진리' '진각' 등의 언급 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아우 르고 있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 르침에서 대성사의 슬결을 다시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염송〉

아내는 부드럽고 유순하므로서 만사를 행복케 하므로 첫째 남편과 자손이 잘 되고 아내의 책임을 다 할 수 있으며 사 람의 정진과 평화의 근본성을 가진 '음마니반메혹'을 염송하는 데 우리나라 고유사상에 바로 맞는 자유와 평등을 이 루게 되고 남편은 재물로서 만사를 이루 게 되므로 첫째 재물이 뜻과 같이 되고 남편의 도리를 다 할 수 있으며 물질의 극락과 칠보의 근본성을 가진 아마타 불 본심미묘진언 '단아타 음 아리 다라 사바하'를 염송하는 데 우리나라의 고유

사상에 바로 맞는 자유와 평등을 이루게 되느니라.

남녀의 성품이 각각 다른 까닭으로 성 능이 다른 두 본심진언을 전적으로 염송 하고 이원으로 심공한 결과 남편은 물질 이 풍부하고 아내는 남편과 자손이 잘 되면서 서로 장애하지 않고 일가가 행복 으로 잘 살게 되는데 나라가 또 융성하 여지고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게 된 묘 법이요 현재 보살회에서 행하고 있는 법 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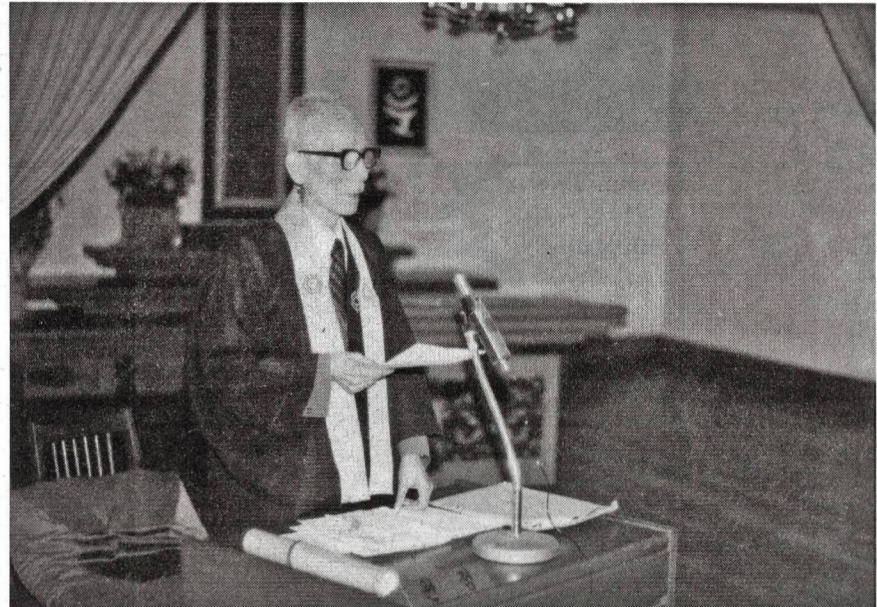
남편으로서 물질에 권능이 없으면 사 회에서 존재가 없음을 물론이거니와 더 욱 그 가정안에서부터 천대함을 받고, 아내로서 남편과 자식이 없으면 노년에 홀 로 피곤함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으로서 자손에 대한 희망이 간절한 사십 중간에 안락한 가정생활을 이루는 이가 드물다.

도덕세계는 그 몸을 먼저 바루는 고로 과거는 수신(修身)하는 시대라. 그러므로 조선조 불교는 불보살에 나타난 위력을 진경하기 위해서 명호를 많이 부르기도 32상 80종호를 관하는 데 따라서 장엄하고 거룩한 인격을 이루었고 이때 유가(儒家)는 체서로서 범절을 이루었고 불 가(佛家)는 장엄한 호상을 이루었다. 종 교시대에는 그 마음을 먼저 밝히는 고로 현재는 정심시대라. 그러므로 담대 불교 는 종파를 나누고 불보살의 본심을 깨닫 기 위해서 본심진언을 전적으로 염송하 고 육행으로 대상을 삼아 자기에게 있는 심인(心印)을 깨쳐서 신묘(神妙)한 각자 (覺者)를 이루게 되니 이와같이 시대 와 인물과 사상이 변천하여 가는 데 따 라 중생의 마음도 그 시대에 응해서 바 루는 진각님의 팔만 사천 교화방편 가운 데 대소 변혁하는 시기가 있어서 부지 중 변해가는 것을 지혜없는 중생은 알지 못할 것이다. (꽃이 열매되는 과정 자체

는 어느 때 변화하여진 줄 모르는 것 과 같음이나니라.)

본심진언을 한번 생각하면 착한 복이 죽을 목숨 한번 살리는 공덕과 같고 행 할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면 오역을 멸 하고 날마다 백여덟번 생각하면 삼도(三途)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매일 끊임없이 생각하면 탐진치 삼독에 애착함이 없어

니하며 큰 물에 빠졌다하더라도 곧 얼 은 곳을 얻을지며 폭풍을 만난 배 가운 데 한 사람이라도 회사하고 염송하면 다 풍파의 난을 면하며 살해를 당할때 나 또 손과 발과 목을 조르고 그 몸을 얼매더라도 죄가 있고 없고 간에 다 해 탈과 구원을 얻을 것이며 높은 산과 달 리는 수레에서 떨어져도 오하려 깨달을



음마니반메혹을 지심으로 염송하면 일체유정이 보살의 마음

지며 지혜가 일어나고 놀림과 두려움이 나지 아니하며 횡사에 이르지 아니하며 좋은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며 의식 (衣食)이 넉넉하여지며 세세생생에 나는 곳마다 삼도(三途)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칠대중족이 다 해탈함을 얻으며 일체유 정이 속히 보살의 마음을 얻나니 이것은 미묘한 본심의 공덕이요 천미외도의 사 술(邪術)이 아니니라.

이 되고 상함이 없으며 도적이 와서 칼 로 위협할 때라도 회사하고 염송하면 좋은 마음을 내며 악한 중생이 물러가 며 독종의 악한 기운이 흩어지며 천둥 치고 번개치며 우박오고 바람이 불지라 도 재난을 받지 않으며 횡액과 난리와 전중(戰中)이라도 염송하면 스스로 구 원을 얻나니 이와같이 공덕이 크니라. 칭찬만 하여도 복을 얻을 것이요 비방 하면 곧 지옥(곤란 재앙 우환 질병 빈

천) 생활을 하게 되느니라.

아미타불이 왕성하는 그곳에는 물질이 발달되어 풍부하여 있고 자성부처와 관 자재보살이 일어나지 않는 그 곳에는 서 로 질투 시기하여 시비 투쟁으로 분열 이산하여진다. 인간으로서의 이 뜻을 무 시하고는 잘 살 수 없으므로 우리 교에 서는 남편은 정공(淨供)하므로서 물질이 넉넉하게 되는 선권(善權)을 가진 미묘 진언을 염송하는 데 본래 바다와 같은 그의 근본성이 열려서 만법(萬法)을 호육하는 회사원리로 회향하며 아내는 유순하므로서 자손이 잘 되는 선권을 가 진 관심진언을 염송하는 데 본래 금강과 같은 그의 성체명리(聖體名理)한 지성이 밝혀져서 일체미혹을 끊어 버리는 무진 원체로 회향하니 이것은 각각 전적 본 능을 최상 발달하는 이원을 세움이라. 남 편은 믿음과 회사의 원동력이 되어서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는 자비와 실천의 지 혜가 되어서 남편에게 반역하고 부부일 체가 되어서 원만구족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데서 곧 보살국토가 되고, 보살국토 를 이루게 되는 데서 곧 극락세계가 되 느니라. 세상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법을

로 칠만번 염송하면 진각님이 지혜로 나 타나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묘덕을 보 며 고통을 여의고 안락한 데 이르러서 널리 유행문을 열어서 정법으로 나아가 게 되느니라. 진각님 말씀이 헛되지 않으 니 무릇 보고 들으며 의심하고 비방하지 말 것이다.

수신법절(修身凡節)을 세우는 시대는 거룩한 서른둘 좋은 상을 모범하게 되어 야 한다. 그 거룩한 상을 모범하자면 그 상을 항상 보고 예배하며 그 명호를 항상 불러서 비몽사몽간에라도 불보살을 친경하게 되고 꿈에도 불보살을 자주 친경할 수 있는 법이다. 본심이 필요할 시대는 본심을 항상 생각하고 남녀가 각 각 자기 성에 해당하는 본심을 서원하고 부르고 염송하게 되면 어떤 순간적 찰나 에 진각님의 본심을 자기 마음 안에서 보게 되고 무시로 항상 서원하고 본심진 언을 끊임없이 염송하게 되면 공간이나 시간이나 항상 자기의 마음 안에 진각님 의 본심을 보게 되느니라.

나에게 있는 심인보살님의 묘력이 크고 밝고 신성한 진리 천수천안 광자재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명진언 음마니반메혹 법계 진각님은 법신이요 만야 호신님은 보신이요 심인 보살님은 화신이라.

'몸'은 회사, '마'는 계행, '니'는 하 심, '반'은 용맹, '메'는 염송, '혹'은 지 혜니 믿고 행하면 생로병사의 고통에 빠 지지 아니 하며 잊지 않고 염송하면 천 재만액이 소멸하느니라. 이 심인은 부처 와 보살과 중생의 본심이다. 만법(萬法) 을 다 가져서 법계의 진리와 우주의 만 사 만리가 구비하였으니 모든 경전은 등 겨와 같고 육자 심인은 백미와 같으니라. 마땅히 지혜로써 용맹과 회사를 세워서 어리석어 선내고 탐하는 마음을 없애야 하느니라.

(자료제공 중학연구원)

조선화원장의 충지 동의 보감

여름철 피부관리법



여름철에는 피부가 외부에 노출이 많아지고, 특히 뜨 거운 도시의 열기를 피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산이 나 바다로 휴가를 떠나게 되므로 햇빛 등에 의한 피부 손상과 벌레나 곤충 등에 의한 자상 등 많은 피부질환 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다한 땀과 피지의 분비로 인 하여 발생하는 질환, 더운 계절에 쉽게 번질 수 있는 음식물의 섭취로 인한 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피부 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하여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피부질환과 여름철 피부관리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후 색소 침착을 남기고 서서히 소실된다. 증증일 때는 흉반 외에도 물질이 형성되고 통증이나 부종이 동반되 기도 한다. 다음은 기미 주근깨로 기미는 중년 여성에 잘 생기며, 연한갈색이나 암갈색의 다양한 크기의 색소 침착반이 태양광선 노출부 특히 얼굴에 발생하는 과색 소 침착성 질환으로 이마, 뺨, 눈 주위에 잘 생긴다. 주근깨는 황갈색 혹은 쌀알 크기의 반점이 노출 부위 인 얼굴, 목, 어깨, 손 등에 주로 나타나며 여름철에 악 화되고 겨울철에 호전되는 경과를 보인다. 여름철 태양 광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부질환의 예방은 장 시간 햇빛의 노출을 피해야 하며 산이나 바닷가 등에서 는 먼저 햇빛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세안을 하고 있지만 피부는 의외로

매우 약하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도록 노력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세안을 하는 데는 온수가 더 좋지만 뜨거운 물은 피부에 주는 자극이 심한데다 지방이 너무 빠져 잔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온수와 냉수를 번 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피부에 긴장을 주어서 좋다. 그 리고 비누는 너무 많은 지방을 빼므로 너무 많이 사용 하면 좋지 않으며 요즘은 폼드크림으로 얼굴의 떠나 화 장을 빼는 여성이 많으나 이 크림속에는 광물성기름, 유 화제, 향료 등이 함유되어 있어 이들 물질이 소량이라도 남아 있으면 오랫동안 피부를 상하게 하여 얼룩점을 만 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크림 사용 후 가제 수 건이나 휴지로 닦는 것보다 온수로 세안을 하는 것이 좋다. 피부는 영양상태를 관장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있게 영양을 섭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단백질을 비롯한 3대 영양소를 섭취하여야 하며 비타민과 무기질은 필수이 다.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건강식품으로는 녹두, 들깨,

미역, 콩나물, 오이, 울무, 당근, 벌꿀 등을 섭취하는 것 이 좋다.

결론적으로 여름철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첫째, 적절한 식생활이 매우 중요하다. 풍부한 단백 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섞인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 다. 둘째, 피부에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선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므로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 적당한 운동과 피부 마사지 등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셋째, 충분한 수면으로 피 로를 없게 하고 전신건강을 유지하므로 건강한 피부상 태를 유지할 수 있다. 모든 질환의 가장 좋은 치료시기 는 예방이며, 이를 위해 본인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천하의 명약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한다. 항상 자 신의 건강을 위해 하루하루 자신의 몸상태를 체크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모두 피부관리 및 피부 질환의 예방으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성美 한의원 원장 ☎(02)545-0072

Advertisement for '여성美' (Women's Beauty) clinic, featuring a photo of the director and text about various treatments.

여성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불임, 임신오제(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비만 클리닉
- 여성: 자궁 다이어트 - 남성: 복부 다이어트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진료시간
평◎◎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말: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오후 1시~오후 2시

Map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여성美 한의원' (Women's Beauty Hanuiwon) clinic, including address and phone number.

Advertisement for various medical services including '생혈액분석기', '자궁발진단기', '초음파', '온열전기침', '저주파저리기', and '자궁목기'.

풍경소리

마음이 만들어 내는 것

마음은 때로 작은 상자를 만든다. 의자를 만들고 책상도 만든다. 마음은 또 집을 짓고 정원도 만든다. 작고 큰 마음들이 모이면 보다 큰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낸다. 맑고 깨끗한 너와 내 마음들이 모이면 푸른 산을 만들고, 맑은 강을 만들고 맑은 하늘을 만든다.

살기 좋은 우리 환경도

청정한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 낸다.

- 김 용 복 (수필가)

초승달과 보름달

어느날 스승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착하게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비유하자면 착하게 사는 사람은 초승달과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름이 지난 달과 같으니라."

"무슨 뜻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름이 지난 달은 차차 줄어들어

마침내 모든 광명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초승달은 날마다 광명이 더해져서

마침내 온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되기 때문이다."

- 집시함경 중에서

마음을 바꾸면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방문을 열고 시어머니의 안색을 살핍니다.

오늘도 차도가 없겠구나 생각하니 살아가는 나날이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날 문득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두터운 업장 탓, 그 업장을 소멸할 기회가 주어졌다 생각하니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것이 여간 고맙지가 않았습니니다.

마음을 바꾸니 몸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 김 현 미 (시인)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옛날, 한고조라는 새가 있었습니다.

이 새는 동지가 없어 밤이면 언제나 추위에 떨며 "날이 새면 꼭 집을 지으리라"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날이 밝아 따뜻해지면 생각이 곧 바뀌어 "이렇게 따뜻하데 애써 집을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서 빈둥빈둥 먹고 놀기만 합니다. 밤이 되면 또 후회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을 추우면 출다고, 더우면 달다고, 아직 이르다고, 너무 늦었다고 갖은 핑계를 대며 다음으로 미루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우리의 한고조는 닭은 풀이 아닐는지요.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 않도록 자신을 다잡아 가야 할 일입니다.

- 박 경 준 (동국대 교수)

(자료제공:(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나도 한마디 지방사원에서 각종 행사나 대법회를 ...

며칠 전 뜨거운 태양은 마치 지구를 태우는 듯한 얼굴로 내리쬐고, 기온은 한증막 속에 있는 것 같은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절친한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뿌리치지 못해 조그마한 사찰에서 큰스님 초청 대법회가 있어 참석하였다.

이 법회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발 디딤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많은 보살들이 지원봉사자로 지원하여 안내원으로 활동하며 방문객이 혹시나 불편한 점이 없는 지 보살과 주었으며,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손수 휠체어를 준비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응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환희한 얼굴로, 활짝 웃는 얼굴로 방문객들의 질문에 성심성의를 다하여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몰래 솟아오르는 가득 찬 환희심으로 돌아왔다.

이 법회를 참석하고 난 후 느낀 점은 우리 종단은 큰 행사나 법회를 서울 총지사와 부산 정각사에서 대부분 개최하고 있고 그 외의 각 지방사원은 대법회를 개최한 적이 거의 없는 형편이지만 시각을 달리하여 지방사원에서도 사원규모에 걸맞는 행사나 법회, 예로 기로스승 초청 대법회 및 지역노인을

위한 경노잔치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사람들을 초청하고 불법에 인연을 맺도록 유도하면 포교를 활성화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사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고, 큰 법회나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소 애용하던 교도들 사이에 협동과 화합을 도모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강 길 주)

나도 한마디는 총지중보 독자의 공간입니다. 책을 읽고 느꼈던 소감이나 총지중보, 총지종 종단에 바라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총지중보사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총지중보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이메일 : kyjyja@hanmail.net



연꽃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연꽃 한 송이 피어나 하나의 극락이 열리고  
그 연꽃 바라보는 한 순간 부처의 마음도 보이도다  
진토가 극락되고  
극락은 우리 마음속에 있나니  
일체중생이 연꽃되는 날 지방세계가 극락되리

- ◆축제기간 : 2003년 6월 29 ~ 2003년 9월 21일
- ◆축제장소 : 천안 상록리조트 놀이공원내 태극광장(야외전시)
- ◆관람시간 : 10:00 ~ 18:00
- ◆주 최 : 국민연금관리공단 상록리조트
- ◆후 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원불교, 현대불교사.

# 종교계 사형제도폐지 촉구

## 6대 종교인 조계사서 기도회



사형제도폐지를 촉구하는 기도회가 7월 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민족종교 6대 종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도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문장식 목사, 이창영 신부 등 각 종교대표들과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 연합 기도모임'

을 개최하였다.

종교대표자들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국회의원 155명이 동의하고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사형폐지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법어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야지 사형제도를 통해 죄악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형제도의 폐지로 진정한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는 날이 앞당겨 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전성삼(문래초등학교 2년) 학생은 사형제도 폐지 발원문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에 착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아져서 어떤 이유나 법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없고 평등한 인권이 존중되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 위하며 사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원했다.

## 참여불교세계대회 한국서 개최

### 환경·평화·복지·인권 등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결

아시아, 유럽, 미주 등 전 세계 참여불교인들이 환경·평화·복지·인권 등을 논의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제 13차 참여불교대회 한국에서 7월20일부터 4박5일간 경기도 용인 삼성생명 휴먼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33개국 200여개 단체가 소속된 참여불교세계연대(International Network for Engaged Buddhists:INEB)가 주최했으며 참여불교세계연대 창시자인 태국의 술락 시바락사(Sulak Sivaraksa), 자비평상으로 민족분쟁을 극복하려는 운동인 사르보다야 운동의 창시자인 스리랑카의 아리아라트네, 캄보디아 참여불교의 상징인 파라 마하 고사난다(Phra Maha Ghosananda) 스님 등 20여 개 국가에서 40여명의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참여불교세계연대 한국조직위(공동조직위원장 법륜스님·박광서 교수)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는데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참여불교의 협력과 연대'를 주제로 출·재가자의 올바른 역할, 대승과 근본불교의 대화, 불교의 여성관, 불교의 청년 참여활동을 비롯하여 환경·복지·평화·인권 등 4개 분야에서의 불교적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참여불교세계연대는 1989년 태국의 술락 시바락사 박사와 일본의 테루마루야마(Teru Maruyama)스님이 중심이 되어 전 세계 11개국 36명의 스님과 재가신도들에 의해 창립되었다. 이 단체는 주로 불교도와 불교도 사이, 그리고 불교도와 타 종교 사이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구환경, 비폭력과 인권신장 등에 대한 불교적 대안을 모색하며 여기에 따른 공동실천 운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비불교민족의 불교개종을 후원하고 비구연합회화성과 담마사회주의운동, 국제적 자선운동 등을 펼쳐왔다. 참여불교세계연대에는 달라이 라마, 캄보디아의 평화운동가인 고사난다 스님, 티벳한 스님 등이 명예고문으로 있다.

## 강남지역 불교단체 활성화 방안 모색

### 강남사원연합회 정기모임

강남사원연합회(회장 원혜스님)는 7월 25일 논현동에 위치한 원각회관에서 강남사원연합회 하반기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모임을 개최하였다.

강남사원연합회는 총지중 복지재단의 주최로 한국 문화의 중심지인 강남에서 불교의 포교를 활성화시키고, 불교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2003년 1월에 결성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기모임에는 봉은사 주지(원혜스님), 총지사 주교(법등정사), 법통사 주지(현수스님), 보리사 주지(성목스님), 원각회 회장(김정만), 청량사 주지, 능인선원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여 강남사원연합회 하반기 추

진사업과 강남구내 지능 및 직장 불교단체 활성화 방안, 강남구청 불자회 지원방안, 지난 6월에 불교 청소년단체인 파라미타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관리자로 선정된 역삼동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에 관하여 강남사원연합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강남지역에는 전통사찰인 봉은사와 총지사, 능인선원등 대형사찰이 위치하고 있어 불교를 포교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강남사원연합회 회원수는 강남지역에 위치한 17개 사찰이 가입되어 있고, 회장은 봉은사 주지인 원혜스님, 부회장은 총지사 주교인 법등정사가 활동하고 있다.

## 청소년 봉사활동 및 재가실습

### 총지중 역삼재가노인 복지센터 주최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에서는 7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삼목보건대학의 소손영의 4명의 학생들이 4주간의 일정으로 소년 봉사단 활동지도,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역삼중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봉사단이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역삼중학교 학생 12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봉사단은 "봉사활동 기간동안 무의탁 독거어르신 도시락 배달 및

말뭇,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수발 및 프로그램진행 보조, 복지관 주변 환경미화 등의 활동을 하며 이번 봉사활동의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실습 프로그램을 주최함으로써 불교의 자비정신을 실행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 한국 불교신자 증가

###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표 제시

통계청과 문화관광부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20년간 한국의 불교신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에 의하면 85년에는 전 인구 대비 19.9%였던 불교신자가 99년에는 26.3%로 증가했다. 이 숫자는 99년 현재 천주교 4.6%와 개신교 18.6%를 합친 것 보다 불교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85년에는 불교인구가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친 것보다 적었다.

또 2003년 한국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불교인구는 27%, 개신교 21%, 천주교 10%미만으로 나타나 문화관광부의 발표숫자와는 차이가 나지만 불교 인구가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문화관광부의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는 여성불교신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남성불교신자의 수가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교신자의 대부분이 40대 이상인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불교계에서는 청소년과 어린이 불자 양성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불교는 그동안 기독교, 천주교 등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었으나 최근 불교교양대학을 통한 신도교육이 활발해지고 각종 수련법회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불교신자를 확보하게 되었고 젊은 층의 불교신자도 계속 증가해 왔다.

또한 불교신자가 계속해서 증가한 원인은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로서 세계인의 관심을 끌며 참선, 윤회사나 등의 실재적인 실천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점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불교의 합리적인 교리가 지적 수준이 높아진 현대인과 젊은이들에게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신행체험 ④

# 한승이 꽃에 보리심을 신고



진종진(자력정)보살 (홍국사 신정회 회장)

은 세상이 고요하게 잠든 새벽 일찍 가파른 언덕 길을 올라 흥국사에 들어선다. 새롭게 단장한 한옥 집 건물로 온화한 부처님의 자태를 자랑하며, 언덕에 올라 앉아 온 동네를 호령하는 것 같이 보이며, 이곳에서는 모든 서원이 성취되고, 성불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운이 온 몸을 감싼다.

흥국사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지는 2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그동안 흥국사는 총기2년에 한복집을 임대하여 교화를 시작하여 총기9년에 허름한 집을 구입하여 비가오면 비를 양동이에 받아가며 수행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한 열정과 신심으로 불교하였던 것 같다.

처음 흥국사를 방문한 사람들은 허스름한 건물에서 불상도 없이 옴니반메움 본존만이 앞에 걸려 있는 채 염송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종교라는 의구심을 가진 채 다음부터는 방문하지 않은 것을 보며 가슴아파 하는 때도 있었다.

계단을 올라 서원당에 들어선다. 옴니반메움 본존 앞에 함장 배례하고 아무도 없는 서원당에 앉아 금강좌를 한 채 염송을 한다.

조용히 앉아 있는 데 갑자기 눈물이 두 눈에

에 예쁘게 단장되어 방긋 웃는 짙레꽃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꽃 시장에 오기 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때서야 오늘 꽃시장에 나온 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 꽃은 예전과 동일하지만 내 마음속에 망령되어 사로잡는 번뇌에 의해 마음에 드는 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조용히 옴니반메움을 염송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거닐 후 꽃을 사기 위해 꽃시장에 들어갔더니 마음에 드는 꽃들이 여기저기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이 일지라도 번뇌와 고인으로 가득찬 마음으로 바라보면 예쁘게 보이지 않게 되는구나, 항상 바른 마음, 청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수행정진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한승이의 꽃을 보며 나와 관련된 모든 인연들이 원만한 관계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어 행복하고 유복한 삶을 살고, 내 마음속에서 항상 비로자나 부처님이 자리잡아 흔들리지 않는 불심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리타를 실행할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을 빌어본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법을 듣게 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정당이 있었음에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수순하며 부처님의 진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 보리심은 법과 지혜, 보살행과 공덕의 원천

### 바른 마음, 청정한 마음은 수행, 정진의 길

서 하염없이 솟아난다. 눈물을 참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참을 수가 없이 흘러내린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감사의 눈물인지 알 수가 없다.

옛날에 아프셨던 단월님이 총지중에 입교하여 불공한 후 완쾌되어 같이 염송하던 모습이 눈앞에 이련히 떠오르며, 모든 자녀들도 각자 건강하게 남부끄럽지 않게 생활하고, 부처님 법에 수순하며 굳은 신심으로 불공을 하고 있어 부처님의 공덕에 감사하는 눈물 이었는 것이다.

이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린 후 마음을 추스르니 처마 밑에 걸려 있는 풍경이 바람결을 따라 팔팔팔팔 들리는 소리와 함께 나의 마음에 부처님의 법문이 들리었다.

"보리심은 종자와 같으니 모든 불법을 내는 연고라. 보리심은 좋은 밭과 같으니 중생들이 깨닫는 법을 자라게 하는 연고라. 보리심은 땅과 같으니 모든 세상을 유지하는 연고라. 보리심은 깨끗한 물과 같으니 모든 번뇌의 때를 씻는 연고라. 보리심은 큰 바람과 같으니 세간에 두루 걸림이 없는 연고라. 보리심은 치성한 불과 같으니 모든 소견인 썩을 태우는 연고라. 보리심은 밝은 해와 같으니 모든 세상을 두루 비추는 연고라. 보리심은 보름달과 같으니 여러 가지 깨끗한 법이 다 원만한 연고라. 보리심은 밝은 등불과 같으니 갖가지 법의 광명을 내는 연고라. 보리심은 깨끗한 눈과 같으니 여러 가지 편안하고 위대한 곳을 널리 보는 연고라. 보리심은 큰 길과 같으니 여러 사람을 큰 지혜의

에 예쁘게 단장되어 방긋 웃는 짙레꽃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꽃 시장에 오기 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때서야 오늘 꽃시장에 나온 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 꽃은 예전과 동일하지만 내 마음속에 망령되어 사로잡는 번뇌에 의해 마음에 드는 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조용히 옴니반메움을 염송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거닐 후 꽃을 사기 위해 꽃시장에 들어갔더니 마음에 드는 꽃들이 여기저기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이 일지라도 번뇌와 고인으로 가득찬 마음으로 바라보면 예쁘게 보이지 않게 되는구나, 항상 바른 마음, 청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수행정진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한승이의 꽃을 보며 나와 관련된 모든 인연들이 원만한 관계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어 행복하고 유복한 삶을 살고, 내 마음속에서 항상 비로자나 부처님이 자리잡아 흔들리지 않는 불심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리타를 실행할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을 빌어본다.

#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현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 주요사업내용

#### 노인복지사업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재가복지 사업
-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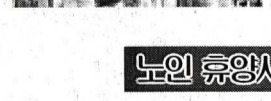


###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남궁당 건립 추진



###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침사리를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 회 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친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단체회원 - 단체명의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한빛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요, 실천적 수행의 가르침

해맑은 창공 사이로 햇살이 손짓하며 유혹하고, 고속도로 옆에서 밀려오는 시골의 풍경들이 한가롭게 보이며 푸르름이 깊어만 가는 나무들 사이로 다 가선 실바람은 나그네의 가슴속을 설레게 한다.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이며 백제의 예술인과 선비들의 전통이 깃든 전주!

통깨이트로 들어서니 제일 먼저 다가선 것은 정갈진 전라도 사투리로 물어보는 안내원의 목소리에 다시한번 향토적인 냄새가 물씬 풍긴다.

이 고장에서 어렵게 자리 잡으며 밑반을 호프하기 위해 일어난 흥국사!

소나무와 물아치는 세찬 바람에도 으쓱한 모습으로 모든 인간고뇌를 해탈하고 이제는 마치 잠마비가 그치고 고요한 항해를 준비하는 선장처럼 밑반으로 전주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새로운 건물로 웅장하게 자리잡은 흥국사가 높은 언덕 기슭에서 밑반을 포교하고 있다.

### 흥국사의 유래

흥국사는 총기2년 전주시내에 한복집을 입차하여 전주선교부로 개설하고 초대주교로 자선원 전수를 임명하였다. 이어 총기5년 전주시 다가동2가 104-1번지를 입차하여 불단이설을 하고, 총기9년 고사동2가 대지75평과 건물을 매입하여 흥국사로 개칭하였으며 대관전수님이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밑공정 전수님이 총기25년 부임하여 재임하고 계신다.

또한 지난해 4월 26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대지 307평을 매입하고 연면적 149.86평에 올해 5월 완공한 신축건물로 단장한 흥국사는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며 전주시역에 밑반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다.

### 관세음보살의 요람

흥국사는 비가오면 빗방울을 맞아며, 찬바람이 불면 벽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두꺼운 담요로 막아며 불공한 허물어진 초가삼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오로지 부처님께서 해탈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불공한 공덕으로 이곳에서 불공한 사람들의 지선들은 모두가 경제적, 신앙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특히 한 보살님은 자신의 신앙체험을 이야기 하는 도중에 눈물을 흘리시며 부처님의 공덕이 이렇게 대단한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하셨다.

“제가 이 불법에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오랜 시절 부터입니다. 불법에 인연을 맺고 서원당에서 불공을 할 때는 7남매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원당에 나와 누구보다 열심히 불공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지 몰라도 지금 큰 아들은 금융업계에서 성공하고 작은 아들도 대기업에서 중역을 차지하며 일하고 있고, 딸들도 모두가 한결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어 지금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불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지극정성으로 서원하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 불공하지 말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항상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불공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살님의 얼굴에는 마치 부처님이 해탈한 모

창사이로 밀려드는 파란 들관을 바라보면서 원인 모를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흘러 내렸다. 누가 보면 저 노인이 혹시 자녀들에게 져주는 기고한 사연이 있길래 저라도 눈물을 흘릴까? 하고 의심할 정도로 눈물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

그 눈물은 다름아닌 부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세찬 바람과 매서운 눈 속에서 고이 피어나는 한 송이의 꽃처럼 부처님의 공덕으로 모든 자녀들이 한결같이 각자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경제적, 문화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생활하고 있으며 모든 자녀들과 며느리와 사위, 조카들이 한결같이 순수한 마음과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음과 자신 또한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편안한 생활속에서 삶에 대해 지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부처님의 공덕에 의한 것이었음을...

만약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남을 중상모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집착에 의해 아마 고통 속에 나날을 살아가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삶은 내일 죽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에 의한 것이었음을...

만약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남을 중상모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집착에 의해 아마 고통 속에 나날을 살아가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삶은 내일 죽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에 의한 것이었음을...

만약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남을 중상모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집착에 의해 아마 고통 속에 나날을 살아가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삶은 내일 죽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에 의한 것이었음을...

**오늘을 살라**

우리는 분명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하며 소위 과거의 잘나가던 시절을 추억하는 사람,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말야.” 하며 과거에 대해 못내 아쉬워하는 사람, “앞으로



리든 듯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 태우는 것과 같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불필요한 고민과 기대 속에서 세월의 에너지를 허비해 왔습니다. 이제 부질없이 지나간 과거의 잘못 때문에 후회와 한탄만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그날이 오기만을 무작정 기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두 번 다시 후회하고 가슴아파할 일이 없도록 두 번째 화살을 맞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내가 만드는 것임을 알아서 오늘을 헛되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역사에 밑공을 그리고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채워가는 일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타벳트는 “내일보다 내생이 먼저 올지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 죽음이 먼저 올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삶만을 생각했지 죽음을 생각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남의 일인 것으로만, 먼 훗날의 것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며 꼭 해야만 하고 서둘러 해야 할 일들을 내일로 미루다가 내일을 보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내일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에겐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팔대로 되리지, 하며 막무가내로 시간을 보내고는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남지 않은 삶이니 하고 싶었던 거나 싶었던 하고 쾌락이나

불교에서는 업(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업이 모여 거저의 나를 만들고, 육신을 만들고, 또 정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생명을 받을 때는 주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업의 힘에 따라 종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즉 인간은 이 세상에 주체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은 업에 따라 온 것입니다. 수행은 이러한 인간의 ‘거저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업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맑고 밝게하여 궁극에는 업의 소멸을 이루게 하는 행위입니다.

올바르게 이해한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거저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업, 즉 내적인 암흑을 밝혀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본성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약 2,500년전 붓다가 제시한 길은 바로 자기 본성을 꿰뚫어 보는 ‘자기 관찰’의 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의 본성을 관찰함으로써 마음을 담고 있는 바로 이 몸통이 안에서 나는 우주와 그 기원, 생성과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수행은 자신을 관찰함으로써 정신적 통찰을 방해하는 편견, 참다운 실재를 은폐하고 고통을 야기시키는 충동 등을 ‘있 그대로 알아차리게’ 하기 위한 마음 정화법

천은 심성을 훈화하는 과정이며 공덕의 쌓임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수행은 각성의 훈련인 정정진, 정념, 정정 즉 좌선과 실상관법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보살님들의 신행체험과 밑공정 전수님의 불교의 교리와 수행의 실천에 대한 법문을 듣고 있노라니 시간의 흐름이 정제되어 있는 것 같았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던가!, 흥국사에서 들었던 법문들이 한 구절, 한 구절 갖가에 매아리치며 아직도 갖가에 생생하다.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선지식인들을 만나는 것과 같다. 오늘도 관세음보살들이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땀방울이 맺힌 밑공의 수행도량인 흥국사를 뒤로 하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 밑공정 전수님은

“계행과 수행의 실천은 그 자체로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계행을 실천함으로써 정신적 초조함을 피하게 되고, 또 각성에 의해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있으나 실재를 꿰뚫어 보고 무지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지혜의 발전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또 수행은 ‘진리에 대한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직접 경험한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경험으로 자기의 아집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지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행동하는 삼밀관행입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 방법들은 걸림없는 삶, 즉 깨달음을 이르기 위한 수단이지, 방편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밑공정 전수님은 계행과 수행의 실천은 그 자체로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계행을 실천함으로써 정신적 초조함을 피하게 되고, 또 각성에 의해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있으나 실재를 꿰뚫어 보고 무지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지혜의 발전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 불공은 지극정성으로 서원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행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습처럼 환한 광명의 빛이 발하며 말소리에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였다.

또한 백발이 허연 노 보살님들의 얼굴에서도 불도를 이루기 위해 땀방울이 맺힌 모습이 마치 이곳이 관세음보살의 요람이 아닌가 싶었다.

### 부처님의 은혜에 대한 참회의 눈물

“서울에서 큰 범죄가 있어 참석하는 길이였다. 차

내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하지? 하며 걱정이 앞서는 사람, “어서 그 날이 빨리 왔으면...” 하며 부른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그럴 수 있고 그것이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형편 없는 오늘의 자신을 끝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가, 과거의 슬픔과 아픔을 현실의 일인 양 너무나 연연해 그 끈을 놓지 못한다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기대만 할 뿐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지나간 일에 대해 근심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 현재에 연하여 할 것만을 따라 바라는 지혜로 최선을 다할 뿐 생각하지 말라. 미래를 향해 마음을 치달리게 하고 과거를 돌아보아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초목에 때

맞겠 즐기다 가면 좋을까요?

그러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삶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진지하게 생각해 봤던 사람이라면 결코 그 아까운 시간을 무가치하게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시급하고 꼭 해야 할 일부터 계획을 세워서 차례차례 이루어 나가려 할 것입니다. 그동안 등한시했던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차분히 돌아볼 것이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한 치의 후회없이 여한 없이 살아가고 싶을 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스럽게 하지 못하는 바르지 못한 생활을 잘못된 자기사랑에 부질없이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나쁜 버릇을, 늘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웬지 부끄러워 할 만 마디 건네지 못한 어리석음을 과감히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늦기 전에 내일이 오기 전에 지금 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에게 용서를, 사랑의 말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시 보지 못할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친절과 호의를... 그리고 오늘 힘써 이루어야 할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매진해야 합니다.

**수행의 실천**

현상계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생성소멸하지만 우리의 일체 의지와 행위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것을

음을 순수하고 평화롭게 하는 지혜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도 중독자에게 술 마시는 습관을 바꾸게 하기 위해 엄청난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듯이 수행자의 업과 습관을 맑고 밝게 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이어온 축적된 노력의 결과이지 우연의 행운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인과의 법칙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단순하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나, 가르침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이해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이나 지적 이해는 실천으로 그 생명력을 부여받을 때만 유용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붓다가 가르친 실제적인 수행의 실천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많은 양의 경전을 암송만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남의 집 소만 세는 목동과 같다. 그는 진리를 찾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내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경전의 몇 구절만을 암송할 수 있을 지라도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의 길 위에서 법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진리를 찾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보상을 받는다.”

고 하셨으며 수행의 실천은 정어, 정입, 정명 즉 계행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계행의 실

정적인 면에서 표현해 보면 ‘한없는 기쁨’입니다. 물통에 가득 찬 물을 힘들게 들고 가다 물통의 밑이 빠지면 일시에 가뭄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라는 놈이 꼭 들어 차 있어서 무거웠는데 일시에 썩 빠져나갔으니 얼마나 가볍고 즐겁겠습니까?

깨달음을 지적인 면에서 표현해 본다면 바로 ‘하’나 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고치짐을 짓듯 욕심을 중심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살아오다가 일시에 ‘나’라는 울타리가 부서져 버리는 일입니다. 즉 나와 남, 나와 우주가 통해져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로 보는 지혜’를 통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즉 실천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나’라는 소아적인 것들이 부서지고 ‘우리’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면서 불교에서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계행과 실천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남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한번도 토로하지 않으시면서 실천을 중요시하는 자비의 실천인 보살도를 행하는 살아있는 부처님입니다.

주소 : 전북 전주시 효자동 1가 150-2  
전화 : 063)224-4358

